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형성과 특성

박혜원

오산대학교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The Formation and the Features of Modern Body Aesthetics in Modern Korea

Hye Won Par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Osan College

(투고일: 2011. 11. 10, 심사(수정)일: 2012. 1. 17, 게재확정일: 2012. 1. 26)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the beauty of the modern body means and symbolizes from the aesthetic,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and to investigate how it was formed in the modern Korean society.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magazines and newspapers published from 1920 to 1939 and analyzed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odern body from an aesthetic standpoint was characterized by the beauty of westernization, healthy body shape, sensuality, curvaceousness, activity, balance and harmony, and artificiality. The beauty of the modern body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symbolized modern culture and implied the value evaluated by visual appearance. Therefore, the modern body became an object of consumption and the physical capital that gave women chances for their social success and happy marriages. The beauty of the modern body from a psychological viewpoint expressed individuality as a modern ego. Second, the formation of modern body aesthetics was explained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comparison theory. The ideal body suggested by mass media was internalized as the aesthetic standard women used to create modern bodies and with which they compared their created bodies.

Key words: modern body(모던 신체), modern body aesthetics(모던 신체미학),
modern Korea(근대 한국), social comparison theory(사회비교이론)

I. 서론

복식은 인간의 신체위에 입혀져서 신체를 통해서 그 미가 표현된다. 아름다운 복식의 미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신체는 현대 사회에서 외면당한다.

신체는 복식의 미를 표현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업과 사회생활, 이성교제, 나아가 결혼에 있어서까지 신체미는 그 기회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려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친구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타인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¹⁾ 또한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²⁾ 이와 같이 신체미는 인간의 사회적 성취와 상호 관계성에 있어 날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커져 왔고, 그 중요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루키즘”이라는 신조어가 대두될 정도이다. “루키즘”이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불리는 “외모지상주의”를 의미한다. 즉, 외모가 개인의 능력 중 하나로 치부되어 개인 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또는 그러한 사회 풍조를 일컫는 것이다.³⁾ 이와 같이 신체미는 현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슈화될 정도로 사회적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체는 자아 개념의 근본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평가하는데 핵심이 된다.⁴⁾ 따라서 신체는 개인의 자아를 표출하고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의 “신체미”란 미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심리적 관점에서 다차원적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인문사회 분야의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신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 특히, 현대 신체미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한 견해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어왔다.⁵⁾

신체는 본질적으로 복식을 통해, 복식은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신체와 복식간의 상호 불가분성으로 인해 의류학 분야에서도 신체미에 대한 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심리적 관점에서는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와의 관계⁶⁾를 중심으로, 미학적 관점에서는 신체미와 패션과의 관계⁷⁾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다차원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현대 신체미가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어떠한 특성으로 형성되었는지 현대 신체미의 근원이 되는 “모던 신체미”의 형성과 그 특성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모던 신체미 형성은 한국 사회에서 근대 의식이 싹트고 근대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한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근대는 단발이라는 신체의 근대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근대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근대를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에서는 여성의 모던 신체미의 의미와 특성보다는 화장법이나 미용 양식, 몸가꾸기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⁸⁾ 미의식 역시 화장과 미용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현대 신체미의 근원이 된 “모던 신체미”의 형성과 그 특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대화로 인해 “신체발부수지부모”의 전통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던 1920~1930년대의 한국 사회는 근대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격동의 시기였으며, 이러한 가운데 신체는 근대 문화와 자아의 투사였으며 새로운 미의식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특성을 심미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모던 신체미의 형성 과정을 사회비교이론⁹⁾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현대 신체미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대 신체미의 근원으로서 모던 신체미의 구조적 개념과 의미, 외모관리 행동의 동기와 유형을 파악하고, 한국 근대 사회에서 모던 신체미에 투사된 시대정신과 근대 문화, 자아개념, 근대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며, 모던 신체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1920년대~1930년대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형성 배경을 고찰한다.

연구문제 2. 모던 신체미의 특성을 심미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연구문제 3. 모던 신체미의 형성 과정을 사회비교 이론을 적용하여 밝힌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모던 신체미는 한국 근대 사회로 이행하면서 새롭게 대두된 근대적 신체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한국 사회에서 근대 의식이 일상에 반영되어 모던 신체미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1920년대~1930년대로 정하였다. 자료는 1920~1930년대의 모던 신체미와 관련된 신문과 잡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1920~1930년대 발간된 잡지 자료는 별건곤, 신여성, 부인, 삼천리, 여성, 신민을 이용하였고 신문 자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를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근대 한국 사회에서 모던 신체미의 형성 배경

1) 새로운 시대정신: 모더니즘, 아메리카니즘, 자본주의

한국 근대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형성 배경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었던 모더니즘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더니즘은 아메리카니즘을 모체로 하는 것으로¹⁰⁾ 아메리카니즘의 지도 원리하에 현대 자본주의와 기계 문명을 근거로 나타나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졌다.¹¹⁾ 자본주의는 산업의 합리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인터내셔

널리즘, 즉 아메리카니즘이라 하였다.¹²⁾

이와 같이 근대 한국에 유입된 모더니즘은 아메리카니즘의 하위개념으로서 아메리카니즘과 동일한 의미로 수용되어¹³⁾ 서구의 근대 과학기술과 기계 문명, 자본주의뿐 아니라 서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동반하였다. 이로 인해 근대 한국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 여성의 자각: 근대 교육, 사회 진출, 자유 결혼과 자아 개념

모더니즘이 영향을 미친 내면적 변화 중 하나는 개인주의로의 변화였다. 자유론과 평등론에 입각한 모더니즘의 논리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여성들의 근대 교육 참여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1920년대 이후부터 직업여성으로 사회 진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개인의 권리와 독립적 사고에 대한 인식의 틀이 확고해지면서 근대 한국 사회에도 개인주의 가치관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개인주의는 여성들의 삶과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사회 진출을 통한 경제적 독립 추구, 자유 연애와 결혼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¹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성들의 '자아'는 각성되기 시작하였다.

자아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아로 분류된다. 이 중 신체적 자아는 자아를 형성하고 평가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¹⁵⁾ 1920년대 근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시작되면서 신체적 자아 뿐 아니라 사회적 자아 역시 신체적 자아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¹⁶⁾ 여성들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회 진출을 원하는 직업여성들의 대부분이 근대 교육과 문명의 수용자들이었으므로¹⁷⁾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 "모던 신체"의 중요성은 더욱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의 사회참여뿐 아니라 개인주의 사상하의 자유 연애와 자유 결혼이 성행하기 시작한 당시 사회는 여성들에게 시대에 맞는 보다 경쟁력 있는 신체미, 즉 "모던 신체미"를 요구하게 되었다.

3) 대중 매체의 등장: 매스미디어, 시각화된 대중 문화와 상업적 광고

모더니즘과 아메리카니즘이 가져온 과학과 기술, 자본주의는 192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신문, 잡지, 라디오,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를 만들어냈고 이들은 큰 인기를 끌었다. 신문, 잡지,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들은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글자, 그림, 활동사진과 같은 시각적 형태로 보여주며, 근대 한국 사회에 시각적 서구 대중문화를 가져왔다.¹⁸⁾ 이와 더불어 이들 매스미디어는 대중들에게 근대 서구 문명을 상징하는 새로운 준거 집단과 준거 기준의 시각까지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매스미디어 속의 광고는 자본주의 원리하에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시각물과 광고 문구로 근대 소비문화를 불러일으켰다.

즉, 1920년대~1930년대 한국 사회에 등장한 매스미디어, 시각적 대중문화, 상업적 광고는 모방하고 소비하고 싶은 근대 사회의 새로운 준거 기준으로서 “모던 신체미”를 제시하였다.

2. 모던 신체미의 특성

1) 심미적 관점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특성

(1) 획일화된 서구적 미

1920년대 대중 매체를 통해 모나리자나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서구 미인과 서양 미인 대회가 소개되었고, 극장에서 상영되는 서구 영화를 통해 서양의 영화배우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모더니즘이 곧 아메리카니즘으로 수용되었던 당시, 대중 매체나 극장의 스크린을 통해 보여지는 서구 미인들의 모습은 근대 한국 사회에 모던 신체미에 대한 서구화된 시각을 제시하였다.

한글자는 현대 문명이 요구하는 미인의 얼굴로 눈이 크고 맑으며 속눈썹이 길고 검으며 코는 코마루가 바로 서야 하고 입은 코넓이의 한 배 반쯤 되며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들어가지 않고 웃을 때 윗니의 절반쯤이 보여야 하며 턱은 알맞게 동그스름하고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⁹⁾ 이와 같이 1920년대 초반부터 얼굴미의 표준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전통적 미를 지닌 한국 여성의 얼굴이 아닌 서구화된 얼굴의 모습이었다. 한국의 전통적 미인의 얼굴로는 눈의 형태는 가늘고 길며, 입술은 붉고 작으며 코의 형태에 대한 형용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²⁰⁾

정인익은 세계에서 훌륭한 미인으로 회자되는 양귀비, 클레오파트라 중 클레오파트라를 동경의 관역으로 삼고 싶다²¹⁾고 하며 동양의 미보다는 서양 신체미에 큰 호감을 드러냈다. 성서인은 세계에 공통되는 미인의 표준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체미의 근본이 되는 전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며, 전 인류 간에는 공통되는 표준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 얼굴, 어깨, 팔, 가슴, 허리, 다리 각 부분의 균형이 잘 잡혀야 한다는 점이었다. 키는 머리 길이의 8배, 얼굴 길이의 10배이며, 얼굴은 머리부터 눈썹, 눈썹부터 코밑, 코밑에서 아래턱까지 같은 길이어야 하며, 안면은 손바닥과 길이가 같고, 두 팔을 벌린 길이는 키와 같다고 하였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미가 달라, 남성의 키는 머리의 8배가 되어야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7.5배가 되어야 하며, 여자가 키가 작으면 앙증스러워 보여도 미인은 못된다고 하였다.²²⁾

이와 같이 1920년대부터 얼굴과 신체의 비례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미적 표준은 서양에서 건너온 풍조²³⁾로 서양의 신체미를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었다. 얼굴이든 몸이든 신체미는 표준화되어 획일화된 서구미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2) 건강한 체형미: 근대적 세련미

신체미의 표준이 서구화됨에 따라 얼굴보다 서구적 체형의 미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1926년 8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얼굴의 미보다 체격의 미를 발휘하라며 얼굴만 곱게 다듬는 것은 시대착오로 운동을 하여 건강미를 발휘하라고 하였다.²⁴⁾ 1935년 10월호 삼천리에서도 현대인의 미의 표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체격, 스타일에 있다며 조선의 모던 남녀들도 그 스타일의 균정된 원만한 체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며, 파리나 할리우드 해외 정보에까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원만하게 균형이 잡힌 완

전한 체격이야말로 가장 현대적 미라는 인식이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어 훌륭한 체격을 가지고자 하는 모던급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²⁵⁾

이와 같이 여성의 체형미를 중시하는 경향은 남성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진건은 제 아무리 얼굴이 예쁘장하고 몸맵시가 어울려도 키가 땅에 기는 듯하고 목고개가 달라붙은 여자는 보기만 해도 화증이 난다²⁶⁾고 하였고, 김동진도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여성이 아름답다²⁷⁾고 하였다. 김동진은 근대미가 풍부한 건강한 체격의 여성이 이상적이라고 하였으며²⁸⁾, 안석영 역시 정식으로 체육 교육을 받은 근대 여학생은 체격이 훌륭하여, 허리가 가늘어졌고 두 다리는 미끈하며 세련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다고 하였다.²⁹⁾

큰 키, 긴 목, 날씬한 허리, 미끈한 다리, 몸의 균형이 잘 이루어진 건강미가 넘치는 체형은 모던 신체미를 가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또한, 이러한 체형은 현대적 미, 세련된 육체로 표현되고 있어 건강하고 균형잡힌 서구적 체형은 곧 현대적 세련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기 위한 비법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체육 교육이었다. 배성용은 젊은 여성의 육체미를 실질적 미라고 하며, 실질적 미를 돕기 위해 체육에 유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여 훌륭한 체격을 만들기에 힘쓰라고 하였다.³⁰⁾ 성서인은 집에서 주야로 앉아 일만 하는 가정 부인은 균형있는 인체미를 얻기 위해 하루 한 번씩이라도 전신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며, 여학생들이 가정 부인보다 자태가 좋은 것은 운동때문이며 여자에게는 수영, 체조, 무용이 필요하다³¹⁾고 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미용 체조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잡지 삼천리에서는 가슴의 모양이 곱게 발달되고 미끈한 각선미를 가지게 되는 신장운동, 횡경막의 균살을 없게 하고 몸의 바른 자세를 만들게 하는 횡경막운동, 허리의 곡선미와 각선미를 돕는 하체운동, 전체의 자세와 건강미를 돕는 당고운동의 구체적 동작을 소개하며 이 체조를 오래 하면 모던 체형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

였다.³²⁾

1920년대 중반부터 모던 신체미에 있어서 건강한 체형미의 중요성은 부각되었고, 이는 근대적 세련미로 간주되어 근대적으로 세련된 건강한 체형미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체조, 체육, 스포츠는 건강하고 모던한 체형미를 만들 수 있는 근대의 새로운 미용 비법으로 제안되었다.

(3) 성적 관능미

근대적으로 세련된 육체는 관능적 미를 불러일으켰다. 안석주는 깡동자른 단발 머리 아래로 가름한 목이 흘러 내려간 것이 신선한 느낌을 준다³³⁾고 하였고, 김기림은 모던 걸의 짧은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육색 스타킹, 즉 다리는 에로티시즘과 흥분을 능후하게 한다³⁴⁾고 하였다.

육체미 백퍼-센트라고 하는 녀성해수욕군들이 잇따름 들식 셋식 누구의 속을 태워보려고 그러는지 해수욕복이 찌저질 젓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면서 슬슬 압호로 지내갈 때면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조금만 더 의지가 약하던지 수양이 부족하였다가는 순사한테 잡히여 갈 행동만 참을수잇으면 디상락원이라고하겠다³⁵⁾

그 조그만 상자속가튼 활동사진상설관에서영사한 그 『몽파리』라는영화는 조선서울이라는 녀절한도시에도영향을끼치고갓다. 서울의 큰 거리에 더구나 백주에한아릇한현상이 나타나그것이충동적으로움죽이어 극도로 퇴폐한서울 ㅅ이들의감정을 혼드러놓는 게잇나니이것은 넷날도포싸리는 놀라서 길바닥에잡바질일이다.

ㅅ이일, 불란사, 은조사, 아사, 당황라, 등 거미줄보다도설피스한그사웃사하로 움죽이는 모던-ㅅ들의 몸동아리니 그들은기탄업시 큰길거리를 썰거버스름으로 질풍가티 뽀다니는 것이다.³⁶⁾

요사이 사람사람의 신경이열단적으로 발달되어가기때문에 눈을주는곳이 별스럽다. 다리-녀자의다리는 더욱더 사나회의눈을살기에 너무도아름다워진다. 그래서지금에는 얼굴보다도 그다리가 정을살고아릇한충동을준다.³⁷⁾

깊게 파인 해수욕복은 여성의 젓가슴과 엉덩이의 근대적 육체미를 적나라하게 보이며 남성들의 현기증을 불러일으켰고, 속살이 흰히 비치는 옷은 근대적 육체를 여과없이 드러내어 남성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았으며 짧은 스커트는 너무나 아름다운 다리의 각

선미를 보여주며 남성들의 정과 야릇한 충동을 이끌어내었다.

여성의 신체미는 수영, 테니스 등의 근대 스포츠를 통해 노출되었고, 짧은 스커트, 깊게 파인 수영복, 속살이 비치는 근대 패션에 통해서도 노출되었으며, 목덜미가 보이는 단발머리와 같은 근대적 헤어스타일을 통해서도 노출되었다. 즉, 근대 교양인 스포츠, 근대 문화인 패션에 의한 노출을 통해 보여진 모던 신체는 현기증이 나도록 야릇한 충동을 일으키는 성적 관능미를 발산하게 되었다.

(4) 유선형의 곡선미

1936년을 대표할 미인의 자격에 대해 국제미용술사는 뉴욕에서 열린 제12회 대회에서 흥미있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것은 '미쓰 1936년'이 되려면 단연 '유선형이어야한다'는 것이었다. 유선형은 본래 자연에 적용하는 것을 말함이니 이 결의는 자연을 현대적으로 살리자는 말이 된다고 하였다.³⁸⁾ 유선형은 단지 서구에서만 통용되는 신체미의 기준이 아니었다. 193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도 유선형이 모던 신체미의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사회의 미적 기준 전반에 적용되고 있었다.

스피드 만능시대의동체는 모두가유선형으로 박귀는모양이다... (중략)... 유선형은빠르다는 데뿐아니라 현대인의시각에 미의초점이되는지도모른다. 여자의 양팔신혼 다리를보아도 유선형이라고... 현대인의우상은 유선형신이 되고만것이다.³⁹⁾

모던 여성들의 신체는 유선형 깃가슴⁴⁰⁾에 유선형 다리까지 이미 유선형의 미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선형 유행이라면 의복, 모자는 물론 삼단 같은 검은 머리까지도 파도물결 모양으로 곱슬곱슬 물결쳐 흐르는 지지는 유선형 머리 모양을 하여, 심지어 유선형 럭비공으로 하는 스포츠, 유선형의 고무까지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풍자가 될 정도였다.⁴¹⁾ 신부를 고를때나 점원을 선택할 때도 유선형은 신체미적 기준으로 작용하였다.⁴²⁾

유선형이란 물이나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앞부분을 곡선으로 만들고, 뒤쪽으로 갈수록 날렵해지는 형태를 뜻하며, 자동차, 비행기 등의

고속 동체 모양에 널리 응용되는 것이다.⁴³⁾ 모더니즘의 근원지인 서구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고속의 스피드를 내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 문명과 신기술은 근대화된 문화로 추앙되었으며 유선형은 자연의 섭리를 근대적으로 적용한 보편적 미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유선형 미는 불륨감 있는 여성 체형의 곡선미, 각선미에 적용되어⁴⁴⁾ 새로운 모던 신체미의 기준으로서 인식되었다.

(5) 균형과 조화의 총체적 미

현대 문명이 요구하는 미인은 옷, 몸짓, 얼굴, 피부, 골격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⁴⁵⁾ 현대 여성이 지난 날의 여성보다 판이하게 다른 점은 외모가 아름다운 것으로, 얼굴이 아름답고, 키가 크고, 체격이 반듯하며 육체가 발달되었고 걸음걸이가 활발하며 탭시가 있고 외모가 균제되어 있는 것이었다.⁴⁶⁾ 따라서, 현대 여성의 미인이 되는 요건은 단순한 미모뿐 아니라, 표정, 복식, 동작, 전 인격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하였으며⁴⁷⁾ 얼굴이 어여쁜 것만 가지고는 안되며, 체격, 말소리, 걸음걸이, 손, 발, 행동에까지 모든 것이 균제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염상섭 역시 현대적 미인의 요소로 육감적 눈, 풍염하고 완실한 체격과 더불어 현대적 언어, 영화, 음악, 미술, 문학 방면은 물론 골프, 스포츠 방면의 상식과 기술까지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⁴⁹⁾

이와 같이 보았을 때 1920~1930년대 나타난 모던 신체미는 얼굴, 체형, 피부, 손, 발, 머리 모양과 같은 물리적 신체의 외형뿐만이 아닌 외적으로 보여지는 내면의 태도인 복식, 표정, 동작, 말소리, 걸음걸이까지 모두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즉, 신체 내면의 외형화된 미와 실제 물리적 신체 외형의 미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총체적 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란 체형과 얼굴 생김새와 같은 신체의 형태, 피부나 헤어 같은 신체 표면의 모양, 걸음걸이, 동작, 말소리와 같은 신체 내면이 외형으로 표출되어 보여지는 언어와 행동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Hillestad의 외모 구조 연구에서 신체는 몸의 형태

(body form), 몸의 표면(body surface), 몸의 동작(body motion)의 측면으로 구성된 복합체⁵⁰⁾라는 개념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현대 신체의 근원이 되는 모던 신체의 구조적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6) 동적 미

근대적 미인의 특징은 5월 하늘에 뜬 종달새같이 화려하고 쾌활한 명랑성에 있다고 하였다. 웃음을 웃어도 크게 웃고, 말을 하여도 더듬더듬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음악에 맞춰 걷는 것처럼 박자에 맞게 걸으며, 보내는 듯 마는 듯한 고전적 추파가 아닌 강렬한 윙크를 보낼 줄 알아야 한다⁵¹⁾고 하며 몸가짐과 행동의 자유로움을 근대적 미로 여겼다. 염상섭 역시 현대적 미인의 요소로 동작이 극단적으로 리드미컬하여 육체의 선 미 뿐 아니라 동작 전체가 미묘한 선의 교향악적 효과를 내고 농후한 색조를 방사하여 현혹의 미를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⁵²⁾ 이와 같이 모던 신체미는 신체를 자유롭게 동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신체의 자유로움과 활동성에 대한 미의식은 1920년대의 단발머리의 유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0년대 서구 영화 속 여배우와 외국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들의 단발머리는 한국 사회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단발을 유행시켰다. 남자의 단발이 강제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여자의 단발은 자발적 행동⁵³⁾으로 당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이에 허영숙은 단발이 밋근한 체격과 경쾌한 걸음걸이에 어울려 유쾌하고 상쾌하여 보기 좋다 하였고, 김원주, 김영환 역시 단발을 하면 활달하고 총명하고 경쾌하게 보인다 하였다.⁵⁴⁾

모던 신체의 동적 아름다움은 1920년~1930년대의 패션과 스포츠의 유행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구스, 양말, 복장이 눈부시게 하-안데다가 엇던 선수는 분까지 발노고 석회백선을 타고 서서 백색나뭇으로 백색 냇트를 향하여 백색 뿔을 주고 밧고 하는 것이 엇지도 청쾌한지.⁵⁵⁾

단발머리, 짧은 스커트, 양말, 구두, 간편화된 속옷, 그리고 근대 스포츠웨어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유롭

고 활발하게 만들었으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여성의 신체야말로 근대적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신체 내면의 근대성의 표현으로 나타난 자유롭고 동적인 신체의 미를 모던 신체미로 여겼다.

(7) 인위적 미: 근대 과학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미

한기자는 현대 문명이 요구하는 미인의 조건을 열거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완벽한 신체미를 구비하기는 어려우니 단장을 통해 그럴듯하게 외모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⁶⁾ 체육과 운동을 통해 신체미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미 육체가 굳어져 새삼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된 부인은 의복 맵시로라도 육체의 단점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고도 하였다.⁵⁷⁾ 예전과 달리 주근깨를 없애는 약이 생기고 대머리진 사람을 위한 생모약이 생기고 코가 낮은 사람을 위한 용비술이 생기고 키를 늘이는 장신술까지 생긴 세상이니 미인 제조란 인공적으로 될 수 있으며⁵⁸⁾ 현대가 찾고 있는 미인을 제조하는 것은 허영이나 사치의 산물이 아니라, 귀한 옥석을 갈고 닦아 더 값진 아름다움을 만들어나가는 것과 같다⁵⁹⁾고 하였다.

체조, 체육은 물론이거니와 의복, 미용, 화장과 같은 몸단장, 외과적 미용 수술에 의해 인공적인 미를 가하여 모던 신체미는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아름답게 단련되어지고 장식되어지며 성형되어진 신체, 이는 곧 신체의 패션화⁶⁰⁾라고도 설명될 수 있으며 인위적 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① 화장품과 화장술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미

안중화는 젊은 여배우들의 미인 제조는 순전히 화장술과 광선 사용법에 의한 것이며, 미인이 아닌 사람을 미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화장하는 차례와 화장품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화장법으로 깨끔보인 여배우도 미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각 신문 부인란에 소개되는 화장법과 화장품과는 매우 다른, '무대 화장', '활동배우 여배우 화장법'이라며 화장술로 서구적 미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⁶¹⁾

1934년 8월호 별건곤에서는 하루에 수 십명씩 미인을 제조하여 내는 일명 오염주씨의 미인제조실을 소개하였다. 호박같이 못생긴 얼굴조차 절대가인으로 만드는 뛰어난 미용술과 화장술 때문에 하루에 사오십 명의 모던 여성들이 미인이 되려고 오염주의 미장실을 찾았다고 한다.⁶²⁾ 오염주는 신문과 여성 잡지에 미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문, 잡지 등의 글을 통해 미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성미용원장 현희운에 의해 192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⁶³⁾

1920년대부터 각 신문 부인란에는 화장, 미용에 관한 다양한 기사가 소개되었고, 인위적으로 서구적 미를 만들 수 있는 전문 화장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모던 신체미란 근대 과학과 기술인 화장품과 화장술에 의해 제조되는 인위적 미로 인식되어졌다. 또한 인위적 미를 제조하는 미용 전문가의 등장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② 미용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미

근대 과학 기술을 근거로 한 미용 기계에 의해서 인위적 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머리 카락에 인위적인 웨이브를 만드는 기계⁶⁴⁾로부터 살을 빼고 서구적 체형의 미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얼굴의 보조개를 만들거나⁶⁵⁾ 코를 높이는 용비기⁶⁶⁾, 쌍꺼풀을 만드는 미안기⁶⁷⁾ 등이 그것이었다. 특히 체형미를 만들기 위한 기계로 “몸이 간알피게 되는 기계”⁶⁸⁾, “곡선미를 내는 기계”⁶⁹⁾, “살 내리는 기계”가 소개되었다. 이 중 살 내리는 기계에 대해 “여자의 체중이 반톤이나 된다면 그야말로 제일큰걱정일것입니다... .이기계속에서 적지않은 괴로움을당하면 나중에는 몸이휨신가벼워집니다.”⁷⁰⁾라고 하여 날씬한 체형미는 미용 기계에 의해 제조가능한 인위적 미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③ 성형 의학과 미용 성형술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미

1927년 5월 14일자부터 5월 19일자까지의 조선일보에서는 “나진코를 인공으로 높히는이야기”⁷¹⁾라는 글을 6회 연속 게재하고 있어 이미 1920년대부터 미

용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30년 5월호 별건곤에서는 얼굴에 있는 주근깨, 점, 사마귀 같은 색소를 빼내는 피부 미용 시술을 행하고 있는 김은선이라는 의사와의 지상좌담회 기사를 실고 있다. 그는 아직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쌍꺼풀 수술과 용비술을 거론하면서 쌍꺼풀 수술은 쉽게 되나 용비술은 과라핀 주사의 부작용이 있으니 상아뼈를 이용한 용비술이 좋다고 하였다.⁷²⁾ 1936년 8월 6일자 조선중앙일보의 “절세 미인을 만든다는 미용 수술의 공덕”이라는 기사에서는 효과가 오래가는 성형 수술로 코를 높고 반듯하게 하는 용비술, 눈뿔시를 고치는 쌍꺼풀 수술, 흰 다리를 고치는 것들이며, 잠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주름살 없애는 것, 뺨을 통통하게 하는 것, 굵은 다리를 가늘게 하는 것을 들고 있다.⁷³⁾ 1937년 7월 3일자 조선일보에서는 “요새 흔히 있는 코수술”⁷⁴⁾이라 하여 한국 사회에 용비술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1938년에는 파리의 유방 성형 미용술까지도 소개되었다.⁷⁵⁾

1920년대 시작된 성형 수술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에 이르러 눈, 코, 주름살, 피부, 다리와 가슴, 즉 얼굴 뿐 아니라 체형에까지 이르렀으며, 눈의 쌍꺼풀과 코 수술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시행이 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때 성형 수술로 만들고자 한 신체미의 기준은 큰 눈, 높은 콧대, 날씬하고 곧은 다리와 같은 인위적인 서구미였다. “신체발부수지부모”의 전통을 가졌던 한국 사회에서 신체의 일부를 빼고 가르고 변형시키는 성형을 통해서라도 인위적인 신체미를 제조할 수 있다는 인식은 1920~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의 ‘메스’, 미인제조, 박색도 걱정없다”⁷⁶⁾라는 기사에서 보여지듯 의사는 인위적 신체미를 제조하는 전문가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2)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특성

(1) 근대 문화의 상징으로서의 신체미

아름다운 여성은 얼굴, 피부, 골격, 의복, 행동 등을 통해 그 시대 문명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그 시대의 문명을 나타낸다.⁷⁷⁾

또한, 문화와 미인은 평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문화가 진보되면 미인도 많아지며 화장, 미용, 몸치장도 시대의 진전, 즉 문화와 발전과 더불어 진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가 가진 바 미를 발휘시키는 방법인 화장, 미용, 몸치장은 사치가 아니라 실로 여인이 가질 미덕의 하나이며 근대적 교양이라고 하였다.⁷⁸⁾ 그러므로,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선천적 미에, 미용술에 의한 인공적인 후천적 미를 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모던사회의 사교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다고 하였다.⁷⁹⁾

이와 같이 1920~1930년대의 여성의 모던 신체미는 근대의 문명이자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신체미를 향상시키고 발휘시키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을 실행하는 일은 근대적 교양이었으며 모던 사회에서의 사교를 위한 기본 자격이었다.

(2) 가시적 외형미의 가치가 증시된 신체미

1920년대 이후 신문, 잡지,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는 대중들에게 시각적 이미지의 불거리를 제공하였고, 제시되어진 시각적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서구 미인의 모습들이었다. 한국 근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보여지는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모던 신체미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대중문화가 익숙해짐에 따라 한국 여성의 신체미도 보여지는 것으로서 가시적인 외형적 미의 중요성이 커졌다.

미는 물론 근본적 미 즉 심적 미를 제일로 존중할 것이지만 현하 문화사회에 있어서는 외형미를 숭상하는 것이 일반의 경향이며⁸⁰⁾, 아름다운 여자와 같이 행복된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⁸¹⁾ 즉, 마음의 미보다 외형의 미가 우선시되었으며, 가시적 외형적 미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행복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여성의 외형의 미는 곧 내적 미의 표징으로서 최고의 가치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치장해야 함은 물론 신체의 결점을 고쳐 더욱 외적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바라 하였다.⁸²⁾

사람의 인격이 그의 화에 잇는가? 한녀성의 미가 그란 사되는 색체로 거죽을 꾸미는데 잇는가? 길로 지나 가는 수레박위의 울림에도 쓸어질듯한 다- 허무러진 초가집에서 나오는 양장한녀자! 자기가 살고 잇는 그 집감보다도 몇배나 되는 그 옷을 입고 굶주린 사람들의 누더기때가 이모진 바람에 날리어 찌저저 헤터지는 이 서울의 거리를 건일때에 그는 모-든 것이 초개가 터 보힐 것이다. 공작이여! 최창쌀속에 화려한 저 꼬리를 피어만족하는 동물원 창쌀의 공작이여⁸³⁾

윗 글은 일제 식민지하에서의 궁핍한 현실속에서도 외형의 신체미만을 가꾸고 발휘하는데 치중한 여성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글로써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외형적인 신체미를 추구하고자 했는지를 보여 준다. 안석영은 “너무도 머리가 탕비인데다가 모양을 낸다 하니 시체녀자들의 꼴이 천착하기 이를데없다 무엇때문에 그러케들 발광이 되었는지... 얼스된 문화의 탓이다.”⁸⁴⁾라고도 하였다. '발광'이라 표현할 정도로 당시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또한 발광의 이유는 얼된 문화, 즉 '보여지는' 대중 매체가 가져온 서구 대중문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아름답게 치장되어 만들어진 서구 미인의 신체미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한국 사회 여성의 모던 신체미는 숨기고 감춰야 할 것이 아닌, 외형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가꾸어져 보여져야 할 대상이 되었다.

(3) 소비의 대상화된 신체미

보여지는 대상이 된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신체는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위해 소비를 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서구 영화, 신문, 잡지 속에서 보여지는 근대적이고 아름다운 신체미를 가진 서양 여성의 모습, 신체미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미용관련 기사, 신체의 결점을 커버하고 아름다움을 증진시켜준다는 미용관련 상품들의 광고, 이 모든 것들은 여성들의 신체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소비를 유발하고 촉진시켰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 유입과 함께 대중매체에 보여지기 시작한 광고는 자사 상품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 신체미를 소비의 대상화시키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누마 구리무” 광고에서는 여성들에게 “옥과 가티 맑은 얼굴에 비단결가티 보드라운 살에 꼭 당신을 절머지게 하는 빠니싱크림입니다”⁸⁵⁾라는 광고 문구로 여성들의 구매를 유도하였고 “삼호수 백분” 광고에서는 “화장은 녀성의 예절입니다”⁸⁶⁾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를 조장하였다

여성의 모던 신체미는 근대의 교양이자 여성의 예절로서 보여져야 하는 것이며, 인위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며, 인위적으로 신체미를 제조하기 위한 수단은 자본에 의해 구매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소비를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특성은 현대 소비사회에서 신체가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Baudrillard⁸⁷⁾의 견해와 부합되는 것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소비문화화된 신체미의 근원은 바로 1920~1930년대의 모던 신체미로부터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자본화된 신체미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모던 신체는 소비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본이 투자되었던 아름다운 신체는 육체적 자본이 되었다.

“모두가 화장덕택으로 미인이 되었고 미인으로 보힌 탓으로 출세를 하는 통이니”⁸⁸⁾와 “출세에 관계되는 코 맵시 이야기”⁸⁹⁾에서 보여지듯 1920년대부터 모던 신체미는 출세 즉 사회적 성공과 관련되었다.

「조흔 신낭감을 구하려고」
「조흔 색시감을 구하려고」
이리하여 문이 메어지게 모여드는 곳이 백화점이다... (중략) ...
백화점 중에 제일 결혼률이 만흔 곳은 즈고개 어구에 있는 「미쓰꼬시」라 하는데... 『미쓰꼬시』의 쇼프결은 비교적 다른 백화점에 비하여 맞는 급료가 조타... (중략) ... 미쓰꼬시가 ... 큰볼조아 친구들을 전혀 고각으로 하는 이 만치 인물선택을 가장 엄격하게 한다고 들었다... (중략) ... 대개가 순명이나 진명이나 녀자상업을 마추고 그리고 그 가정이 비교적 점잔은 집안의 따님들을 채용하는데 그 보다는도 얼굴과 스타일이 아름다운 이를 채용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백화점에 일하는 『제복의 처녀』들은 첫재 용서(容姿)와 언어동작이 아름다워서 고각의 호감을 끄는다... (중략) ...
화신백화점 녀점원의 결혼률이 비교적 적은 것이 정평이라 한다... (중략) ... 『화신백화점에는 미인

이 업서』하고 평하는 이가 대부분임으로 아마 미인이 업는 까닭에 결혼률이 적은 것이 사실일 것갓다.⁹⁰⁾

근대 최고의 소비문화 공간이었던 백화점의 샵결은 근대 교육을 받은 모던 여성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직장이었다.⁹¹⁾ 윗글에서 보여지듯 얼굴과 스타일, 언어와 동작이 아름다운, 즉 모던 신체미를 소유한 여성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었으며, 취직후 결혼을 할 확률도 높았다. 또한 ‘부르주아’ 고객과 결혼을 하여 신분 상승을 할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다. 즉, 같은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일지라도 모던 신체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 진출과 결혼의 기회가 달리 주어졌다.

이와 같이 근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모던 신체미는 육체 자본화되기 시작하였고 육체의 자본화가 가져온 기회와 성공은 여성들에게 더욱 신체에 대한 소비 동기, 외모관리행동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는 시대와 사회가 설정한 여성미를 구형한 몸은 경제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일종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Bourdieu⁹²⁾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근대 한국 사회의 모던 신체미는 현대 신체미의 근원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3) 심리적 관점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특성: 모던 자아의 표현으로서 개성미

모던 사회에서 사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미용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며 실행에 옮겨 모던 신체미를 제조해야 했다.

1935년 삼천리에서는 “현대인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미용제조법”을 소개하며, 이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운동을 계속하여 실행하기만 하면 누구든 반드시 건강하고 보다 훌륭하며 균형있는 체격을 가질 수 있다며 새로운 미용 지식의 “학습”과 “실행”을 권장하였다.⁹³⁾

이와 같이 1920년대 이후 신문, 여성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는 근대 교양으로서 미용법, 화장법, 의복 유행, 체조, 스포츠, 성형 수술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총망라하여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와 지식을 스스로 “실행”

하는 일이었다. 스스로 단발을 하고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고 스포츠를 행할 때만이 모던 신체미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1920~1930년대의 모던 신체미 기준의 제시는 비록 타율적이었으나, 모던 신체미의 제조는 능동적인 자아를 가진 “모던 자아”만이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 한국 사회에 나타난 여성의 모던 신체미는 “모던 자아”의 표현이었다. 안석주는 옷이나 기타의 표면으로 자기 마음을 못 사람 앞에 내어 보이는 것으로 모던 자아의 표현을 설명하였다.⁹⁴⁾ 김경일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근대적 신체는 자기의 식의 표현이라 하였다.⁹⁵⁾ 짧은 스커트와 구두, 단발과 화장, 체조와 스포츠와 같은 근대 문화와 교양의 실천은 모던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이었으며, 이와 같은 수단에 의해 제조되어진 모던 신체미는 모던 자아를 상징하는 개성이었다.

3. 사회비교이론을 적용한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형성 과정

시대의 추이와 사조의 변천에 따라 이상적인 여성 신체미의 표준은 달라진다. ⁹⁶⁾ 미는 시대에 따라 움직여 옛날의 미는 시대의 진전과 함께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미가 새 시대와 함께 창조되며, 새로운 시대의 미는 새로운 시대의 인간으로부터 새로 건설된다.⁹⁷⁾ 1920~1930년대 한국 사회에서는 모더니즘과 아메리카니즘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새로운 근대 시대와 함께 새로운 모던 신체미가 창조되었다.

그러나 당시 매스미디어에 의해 제시된 모던 신체미는 실제 한국 여성들의 현실적인 신체와는 거리가 먼 이상적 신체미였다. 배성용은 조선 여자들은 미에 대한 상식이 박약하고, 체육이 보급되지 않아 실제 육체미는 보잘 것이 없다고 하였다.⁹⁸⁾ 정인익 역시 큰 키에 날씬한 체형, 쌍꺼풀진 큰 눈, 날이 선 코, 뇌살적 미를 가진 서구적이고 요염한 여성은 조선에 많지 않다고 하였다.⁹⁹⁾ 안석영은 당시 여성들의 옷차림과 걸음걸이는 ‘몽파리’라는 프랑스 영화의 여배우를 흉내낸 그대로이나, 짧은 목, 일자 어깨, 긴 허리, 짧고 휘어진 다리 모양의 그녀들의 체형은 불구자에 가깝다 하였다.¹⁰⁰⁾

따라서 여성들은 이상적 신체미를 기준으로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코가 낮은 것이 유감이라 낮은 코를 높게 하는 수가 있는지 용비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없는지 잡지나 신문에 미용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였고¹⁰¹⁾, 체형의 문제로 많은 여성들이 너무 고민을 하여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였다.¹⁰²⁾

이와 같이 이상적 신체미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미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모던 신체미를 만들고자 하였다. 분기등으로 콧마루를 세우고 눈을 크게 보이며 백분으로 목이 길어 보이는 서양인의 얼굴처럼 보이는 화장을 하고¹⁰³⁾ 단발머리나 퍼머넌트 웨이브 머리에 손톱에는 매니큐어를 칠하여¹⁰⁴⁾ 서구적미를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에 짧은 검정 통치마나 양장 차림에 굽 높은 구두를 신어¹⁰⁵⁾ 각선미와 곡선미, 관능미, 동적 미, 조화와 균형의 미를, 체조나 근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체형미를, 미용사나 성형외과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미용 시술이나 성형 수술을 받아 인위적인 신체미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제시되고 승인된 이상적 신체미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미와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인 신체미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외모관리행동을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형성된 신체미는 사회비교에 의해 가치평가되어 신체 자본화됨으로써 사회비교와 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동기를 더욱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비교의 반복 과정을 통해 모던 신체미의 평가 기준과 인식을 확립시켜 모던 신체미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신체는 객관적 수치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인지되므로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를 형성한다는 Festinger의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¹⁰⁶⁾ Rudd, Lennon¹⁰⁷⁾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나 준거 집단내의 외모기준을 관찰하여 이상적 신체미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것과 비교하며, 이러한 사회비교에 의하여 자신의 신체미에 대한 평가와 외모관리행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다시 사회비교과정을 통해 평가된다는 사회비교이론에 근거한 신체미학모형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근대 한국 사회의 모던 신체미 형성 과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때 모던 신체미를 제조하기 위한 외모관리행동 역시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모관리행동의 유형¹⁰⁸⁾과 거의 유사하여 1920~1930년대의 모던 신체미로부터 현대의 신체미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외모지향주의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다차원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신체미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1920~1930년대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의 특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형성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대 한국 사회에서 모던 신체미의 형성 배경은 모더니즘, 아메리카니즘, 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여성의 근대 교육, 사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자유 연애나 결혼과 같은 개인주의적 삶과 자아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며 여성들에게 모던 신체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근대 과학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신문, 잡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는 한국 사회에 시각화된 대중문화와 상업주의적 광고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 한국 사회에서 모방하고 소비하고 싶은 새로운 준거 기준으로서 여성의 모던 신체미가 제시되었다.

둘째, 모던 신체미의 특성은 심미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관점에서 고찰되었다. 심미적 관점에서는, 모더니즘이 곧 아메리카니즘으로 수용되어 서구적인 것이 곧 근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근대 한국 사회에서 모던 신체미는 서양의 표준화된 신체미를 의미하였고, 이는 획일화된 신체미의 시작이 되었다. 신체미의 표준이 서구화됨에 따라 체형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건강미, 관능미, 유선형의 곡선미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형미도 균형과 조화의 총체적인 신체미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체형, 얼굴, 피부, 손, 발, 머리 모양과 같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체뿐 아니라 신체 내면의 근대적

자아가 외형으로 표출하는 표정, 언어, 동작 모두가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이때 근대적 자아가 표출하는 신체미는 자유롭고 활동적인 동적미를 지니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 외형미, 특히 서구적 체형미는 당시 여성의 현실적 신체와는 거리가 먼 이상적 미였다. 따라서, 의복과 체조, 근대 스포츠는 물론이고 화장품, 화장술, 미용 기계, 성형 수술과 같은 근대 과학 기술을 이용하거나, 미용사나 의사와 같은 미용 전문 직업인의 도움을 받아 인위적미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모던 신체미는 근대 문화를 상징하였고, 가시적 가치로서의 외형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가시적 가치가 중시되어진 신체는 모던 신체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소비의 대상이 되었고 소비화되어 자본이 투자되어진 신체는 사회적 성공과 행복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육체 자본이 되었다. 심리적 관점에서 모던 신체미는 근대 교양의 능동적 실천을 통한 모던 자아의 투사적 의미로서 모던 자아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셋째,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모던 신체미의 형성 과정은 사회비교이론을 적용한 신체미학 모델로 설명되어졌다. 즉, 사회가 제시한 이상적 신체미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와 비교함으로써 외모관리행동을 실행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신체 역시 일련의 사회비교과정에 의해 신체미에 대한 평가기준과 인식을 확립시켜 모던 신체미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모던 신체미는 한국 사회가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1920~1930년대에 사회적 요청에 의해, 사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회와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되어져, 근대 문화, 시대의 정신과 미의식, 그리고 근대적 자아가 모두 투사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던 신체미는 신체의 패션화, 개성화, 사회화, 소비화, 자본화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근대 한국 사회에서의 모던 신체미는 그 구조적 개념과 특성, 외모관리행동의 유형과 동기, 신체미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보여지는 신체미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1920~1930년대의 근대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모던 신체미는 현대 한국 사회의 신체미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20~1930년대의 한국의 근대화는 경성이 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모던 신체미의 형성은 한국 사회 전체에 걸친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Synnott, A. (1990), Truth and goodness, mirrors and mask,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1, pp. 55-76.
- 2) Hamermesh, D. S. (2011), *Beauty pays: Why attractive people are more successful*,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57.
- 3) 김민주 (2008), *2008 트렌드 키워드*, 서울: 미래의 창, p. 237.
- 4) 강혜원 (1984),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251.
- 5)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Richard Nice(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01-205.
Baudrillard, J. (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이상률 역 (1992), *소비의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p. 208.
- 6) 임경복 (2009), 사회적 자아와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6), pp. 67-77.
이미숙 (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6), pp. 96-109.
김은주 (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Lennon, S. J. et al.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pp. 192-193.
- 7) 이성희 (2009), 패션과 신체 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4.
김은희 (2001), 20세기에 나타난 여성의 이상적 신체미와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494-504.
김소영, 양숙희 (2002),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제 2보), *복식*, 52(8), pp. 41-54.
김소영, 이병화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4(3), pp. 129-143.
- 8) 김미선 (2005), 1930년대 신식 화장담론이 구성한 소비주체로서 신여성, *여성학 논집*, 22(2), pp. 145-182.
맹문재 (2003), 일제 강점기의 여성성에 나타난 여성미용 고찰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3), pp. 5-30.
이영아 (2008), 1900~1920년대의 여성의 '몸가꾸기' 담론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문화*, 44, pp. 127-151.
- 9) Lennon, S. J. et al., *op. cit.*, p. 191.
- 10) 임인생 (1930. 1. 1), "모던이썸", *별건곤*, 25, pp. 136- 137.
- 11) 오석천 (1931. 6. 1), "모더니즘 회론", *신단*, 67, p. 29.
- 12) 임인생, *op. cit.*, pp. 136-137.
- 13) 박혜원 (2011), 한국 근대문화 소비주체로서 모던 신세대의 가치관, 소비문화, 의복태도 특성: 1920년~1930년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9), pp. 99-109.
- 14) *Ibid.*, p. 103.
- 15) 강혜원, *op. cit.*, p. 251.
- 16) 임경복, *op. cit.*, p. 76.
- 17) 박혜원, *op. cit.*, p. 102.
- 18) 이영아, *op. cit.*, pp. 139-140.
- 19) 한기자 (1922. 12. 10), "현대 문명이 요구하는 미인", *부인*, 6, p. 27.
- 20) 홍선표 (2003), 한국 미인화의 신체 이미지, *한국문화연구원 겨울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p. 20.
- 21) 정인익 (1929. 2. 1), "낙화와 미인", *별건곤*, 19, pp. 124-125.
- 22) 성서인 (1928. 8. 1), "미인제조비법공개", *별건곤*, 15, pp. 150-152.
- 23) "현대인으로 반듯이 알아야 할 미용제조법" (1935. 10. 1), *삼천리*, 7(9), pp. 210-211.
- 24) "얼굴의 미보다 체격의 미를 발휘하라" (1926. 8. 29), *조선일보*, p. 3.
- 25) "현대인으로 반듯이 알아야 할 미용제조법", *op. cit.*, pp. 210-211.
- 26) 현진진 (1929. 2. 1), "미인 내가 조케 생각하는 여자", *별건곤*, 19, p. 122.
- 27) 김동인 (1929. 2. 1), "미인 내가 조케 생각하는 여자", *별건곤*, 19, p. 122.
- 28) 김동진 (1932. 5. 15), "예술가의 미인관", *삼천리*, 4(5), p. 27.
- 29) 석영 (1932. 5. 1), "근대 여학생은 체격이 조와, 여학생이여 단발하라", *삼천리*, 4(5), p. 17.
- 30) 배성용 (1925. 2. 11), "젊은 여성의 육체미·실질미", *신여성*, 3(2), pp. 21-25.
- 31) 성서인, *op. cit.*, pp. 150-152.
- 32) "현대인으로 반듯이 알아야 할 미용제조법", *op. cit.*, pp. 210-211.
- 33) 안석주 (1924. 11. 1), "미관상으로 보아서", *신여성*, 2(11), pp. 6-9.
- 34) 김기림 (1933. 2. 22), "봄의 전주곡, 봄의 전령-북행 열차를 타고", *조선일보*, p. 4.
- 35) 이동원 (1932. 7. 1), "여름의 환락경, 해수욕장의 에 로그로", *별건곤*, 53, p. 12.
- 36) 안석영 (1929. 7. 27), "몽파리나너, 여름 풍경 (2)", *조선일보*, p. 3.
- 37) 안석영 (1930. 1. 12), "여성선전시대가 오면 (2)", *조선일보*, p. 5.
- 38) "미쓰 1936년이 되시라는분은?" (1935. 4. 19), *조선중앙일보*, p. 4.
- 39) "포탄과 현대의 애인" (1935. 2. 2), 유선형시대 (1), *조선일보*, p. 4.
- 40) "금하 유행의 의상" (1935. 7. 1), *삼천리*, 7(6), p. 207.
- 41) "미인제조실 참관, 오엽주씨의 미장실" (1934. 8. 1), *삼천리*, 6(8), pp. 137-139.

- 안석영 (1935. 2. 5), “표준달려진 미남미녀씨, 유선형 시대 (3)”, *조선일보*, p. 4.
- 42) 안석영 (1935. 2. 6), “유선형도시 바비론 성인 유선형 시대 (4)”, *조선일보*, p. 4.
- 43) “유선형”, Doopedia 두산백과, 자료검색일 2011. 9. 11, <http://100.naver.com/100.nhn?docid=122370>.
- 44) 점혜숙, 부면객 (1937. 1. 1), “장안 신사숙녀 스타일 만평”, *삼천리*, 9(1), pp. 104-111.
- 45) 한기자, *op. cit.*, p. 27.
- 46) 망중한인 (1925. 9. 1), “여성미예찬”, *신여성*, 3(9), pp. 42-43.
- 47) “미인제조교과서” (1931. 1. 1), *신여성*, 5(1), pp. 96-103.
- 48) 최독견 (1932. 5. 15), “예술가의 미인관, 춘희의 『히로인』 가튼”, *삼천리*, 4(5), p. 26.
- 49) 염상섭 (1930. 4. 1), “현대미인관, 문학과 미인”, *삼천리*, 5, pp. 44-45.
- 50) Hillestad, R. (1980),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ppearance, *Dress*, 5, pp. 117-125.
- 51) 최독견, *op. cit.*, p. 26.
- 52) 염상섭, *op. cit.*, pp. 44-45.
- 53) 박혜원, *op. cit.*, pp. 104-105.
- 54) 허영숙, 김원주, 김영환 (1932. 5. 1), “여학생이여 단발하라”, *삼천리*, 4(5), pp. 17-18.
- 55) 일기자 (1927. 10. 1), “전조선여자정구대회를 보고”, *별건곤*, 9, pp. 78-79.
- 56) 한기자, *op. cit.*, p. 27.
- 57) 성서인, *op. cit.*, pp. 150-152.
- 58) *Ibid.*, pp. 150-152.
- 59) “미인제조교과서”, *op. cit.*, pp. 96-103.
- 60) Entwistle, J. (2000),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pp. 6-28.
- 이성희, *op. cit.*, p. 32.
- 61) 안중화 (1928. 8. 1), “아모라도 미인으로 보히는 여우 화장법의 비밀”, *별건곤*, 15, pp. 150-158.
- 62) “미인제조실 참관, 오엽주씨의 미장실”, *op. cit.*, pp. 137-139.
- 63) 현희운, *op. cit.*, p. 52.
- 64) “숙녀비망첩” (1933. 7. 1), *신여성*, 7(7), p. 74.
- 65) “불우물 맨드는 기계” (1937. 7. 29), *동아일보*, p. 3.
- 66) 현희운 (1922. 7. 10), “미용문답”, *부인*, 2, p. 52.
- 67) “미안기” (1939. 11. 1), *여성*, 4(11), p. 43.
- 68) “체형? 사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이 간알피게 되는 기계” (1936. 5. 27), *동아일보*, p. 3.
- 69) “곡선미를 내는 기계” (1937. 7. 1), *동아일보*, p. 3.
- 70) “살 내리는 기계” (1937. 6. 22), *동아일보*, p. 3.
- 71) “나진코를 인공으로 높히는 이야기” (1927. 5. 14), *조선일보*, p. 3.
- 72) 로아 (1930. 5. 1), “청화의원 김은선씨의 미용술을 中心으로 - 홀몬설까지, 지상이동좌담회, 해학속에 실정”, *별건곤*, 28, pp. 87-90.
- 73) “절세미인을 만든다는 미용수술의 공덕” (1936. 8. 6), *조선중앙일보*, p. 5.
- 74) “가정, 출세에 관계되는 코 맵시 이야기, 요새 흔히 잇는 코수술은 마루매도 천연스럽지 않다” (1937. 7. 3), *조선일보*, p. 4.
- 75) “침단을 걷는 짓의 미용술” (1938. 6. 19), *조선일보*, p. 2.
- 76) “의사의 ‘베스’, 미인제조, 박색도 걱정없다” (1937. 5. 1), *조선일보*, p. 4.
- 77) 한기자, *op. cit.*, p. 27.
- 78) “미인제조교과서”, *op. cit.*, pp. 96-103.
- 79) “현대인으로 반듯이 알아야 할 미용제조법” (1935. 10. 1), *삼천리*, 7(9), pp. 210-211.
- 80) “부인화장 선택에 대하여” (1931. 3. 15), *신여성*, 5(3), p. 27.
- 81) 성학박사 (1925. 11. 1), “양성미의 이해”, *신여성*, 3(11), pp. 33-34.
- 82) “미인제조교과서”, *op. cit.*, pp. 96-103.
- 83) 안석영 (1928. 2. 9), “꼬리피는 공작, 가상조건 (3)”, *조선일보*, p. 5.
- 84) 안석영 (1933. 10. 25), “호귀의 출몰, 만추풍경 (5)”, *조선일보*, p. 2.
- 85) “메누마 구리무 광고” (1931. 12. 1), *신여성*, 5(11), p. 9.
- 86) 김미선, *op. cit.*, p. 166.
- 87) Baudrillard, J., *op. cit.*, p. 208.
- 88) 안중화, *op. cit.*, pp. 150-158.
- 89) “가정, 출세에 관계되는 코 맵시 이야기, 요새 흔히 잇는 코수술은 마루매도 천연스럽지 않다”, *op. cit.*, p. 4.
- 90) “결혼시장을 차저서, 백화점의 미인시장” (1934. 5. 1), *삼천리*, 6(5), pp. 156-159.
- 91) 박혜원, *op. cit.*, pp. 102-103.
- 92) Bourdieu, P., *op. cit.*, pp. 201-205.
- 93) “현대인으로 반듯이 알아야 할 미용제조법”, *op. cit.*, pp. 210-211.
- 94) 안석주 (1924. 11. 17), “미관상으로 보아서”, *신여성*, 2(10), pp. 6-9.
- 95) 김경일 (2001), 1920~1930년대 신여성의 신체와 근대성, *정신문화연구*, 24(3), pp. 185-207.
- 96) 배성용, *op. cit.*, pp. 21-25.
- 97) “미인제조교과서”, *op. cit.*, pp. 96-103.
- 98) 배성용, *op. cit.*, pp. 21-25.
- 99) 정인익, *op. cit.*, pp. 124-125.
- 100) 안석영, *op. cit.*, p. 3.
- 101) 현희운, *op. cit.*, p. 52.
- “위생문답” (1935. 5. 1), *조선중앙일보*, p. 4.
- 102) 로아, *op. cit.*, pp. 87-90.
- 103) “새로 유행하는 화장 양식” (1925. 3. 29), *조선일보*, p. 3.
- 104) “미인제조실 참관, 오엽주씨의 미장실”, *op. cit.*, pp. 137-139.
- 105) “풍자화” (1925. 6. 1), *신여성*, 2(6·7), p. 36.
- 106) Lennon, S. J. et al., *op. cit.*, p. 192.
- 107) *Ibid.*, p. 192.
- 108) 김은주, *op. cit.*, p. 13.